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among  
Operating Room Nurses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유은미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정윤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유은미

유은미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손   행   미      인

심사위원      김   명   숙      인

심사위원      박   정   윤      인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2023년 8월

## 감사의 글

적지 않은 시간동안 대학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응원과 함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논문을 통하여 감사를 전합니다. 늘 바쁜 수술실 환경에 있음에도 대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양해해주신 제 일터의 모든 분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과정이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임상에서 더 쓰임이 많은 간호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박정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연구 내용이었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진심 가득한 조언을 해주신 손행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자상한 응원과 함께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 김명숙 간호부원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술실 간호사로서 발전할 수 있게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주어진 기회에 도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신 김경자 수술간호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업무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따뜻하게 다독여주셨던 유은정 수간호사님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값진 조언들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채워주신 이선영 수간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바쁜 수술실 환경에서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수술실 간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제가 열정을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바쁜 일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승일 교수님, 김동관 교수님, 김용희 교수님, 김형렬 교수님, 최세훈 교수님, 이근동 교수님, 윤재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언제나 배려해주고 큰 도움을 준 소중한 동료 고충원, 심근우, 이윤지, 차주송, 전가해 간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또 간호와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실질적인 조언들로 늘 많은 힘을 주

신 천미순, 문혜원, 정주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벽찬 대학원 과정이었지만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준 김보미, 김시진, 박강기, 신은정, 이해민, 최혜진 선생님께 마지막까지 함께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고,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임상간호리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나은 모습의 간호사가 되게끔 원동력이 되어주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와 힘을 준 김영빈, 김인성, 이재윤, 이상혁, 백주호, 김석우, 유태양, 김영균, 강찬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때론 많이 힘들었던 이 과정을 즐겁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며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 가족들, 부모님과 언니와 형부, 사랑스러운 우리 조카 하영이, 그리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서울 소재 A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소독 및 순회 간호사, 회복실 간호사, 수술전담간호사를 217명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독립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7%이었고 연령의 평균은 35.69세로 30대 이상 40대 미만인 경우가 41.5%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이 각 50%이었으며 교육정도는 대학교 학사를 소지한 경우가 86.5%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 근무 경력의 평균은 11.98년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32.5%, 수술실 근무 경력의 평균은 11.45년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29.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인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는 소독 및 순회 간호사가 56.5%, 회복실 간호사가 28.5%, 수술전담간호사가 15.0%이었다.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4점이었고, 하위영역 별 평균은 객관성이 4.16점, 지적 공정성 4.15점, 지적 열정 및 호기심 3.81점, 신중성 3.65점, 자신감 3.61점, 체계성 3.46점, 건전한 회의성 3.34점이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60점이었고, 하위영역 별 평균은 자기보상 4.07점, 리허설 4.00점, 자기기대 3.85점, 건설적 사고 3.58점, 자기목표설정 3.53점, 자기비판 2.59점이었다.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는 4점 만점에 평균 3.23점이었고, 하위영역 별 평균은 간호업무 수행능력 3.28점, 간호업무 수행태도 3.23점, 간호업무 수준향상 3.21점, 간호과정 적용 3.20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는 연령에 따라서 40세 이상의 대

상자들의 간호업무성과 정도가 높았고( $F=12.497, p<.001$ ), 결혼여부에 따라서 기혼인 경우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t=3.083, p=.002$ ). 또한 근무 경력에 따라 총 임상 근무 경력( $F=10.548, p<.001$ )과 수술실 근무 경력( $F=11.130, p<.001$ ) 이 15년 이상인 대상자들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4.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 $r=.558, p<.001$ )과 셀프리더십( $r=.503, p<.001$ ) 두 변수와 간호업무성과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각 하위영역 별로 확인했을 때, 비판적 사고 성향은 체계성, 지적 열정 및 호기심, 자신감, 객관성, 건전한 회의성, 지적 공정성 순으로 간호업무성과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자기비판을 제외하고 자기기대, 자기목표설정, 건설적 사고, 자기보상, 리허설 순서로 간호업무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5. 대상자들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3.6% 이었고,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영역 중 체계성과 지적 공정성,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자기기대와 자기보상, 수술실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와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수술실 근무 경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 중 체계성과 지적 공정성, 셀프리더십 중 자기기대와 자기보상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간호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 경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간호 분야에서 경력을 활용하여 자기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호업무성과의 증진 요인으로 확인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이라는 특수 분야의 간호 전문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술실의 특성을 반영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간호업무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수술실 간호사



# 목차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용어의 정의	2
II . 문헌고찰	4
III . 연구방법	
1. 연구설계	9
2. 연구대상	9
3. 도구	9
4. 자료수집	11
5. 윤리적 고려	12
6. 자료분석	13
IV . 연구결과	14
V . 논의	24
VI . 결론 및 제언	29
참고문헌	31
부록	40
Abstract	58

##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 . . .	15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of Participants . . . . .	17
Tabl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	19
Table 4. Correlation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 . . . .	2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Nursing Performance . . . . .	2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수술실은 병원 내에서도 엄격한 통제와 제한된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의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Caldeira et al., 2013),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외과 영역이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었다. 이에 수술실 간호사에게도 복잡한 수술에서의 전문성과 함께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Yoon, 2010). 또한 여러 과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수술실 간호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Yoon, 2010). 수술실에서는 하나의 실수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데(Kim et al., 2006)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피할 수 없기에(Yoon, 2010)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수술실 간호사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간호사의 간호실무 과정 중 부딪히는 수많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강조되는 비판적 사고와(Park & Kwon, 2007), 외부의 통제 대신 내적 영향력과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성이 중심이 되는 셀프리더십이(Manz, 1983)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간호 지식, 술기와 함께 간호 교육 과정 내에서도 강조되고 있다(Memarian et al., 2007). 셀프리더십은 간호사 개인의 발전과 간호업무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 정도와 주관적인 개인 성과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Seomun, 2005). 그러나 선행 연구들이 일반 간호대학생과 일반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수술실은 일반 병동 간호 단위와 역할과 업무, 근무 상황 등이 상이하야(Park et al., 2008) 기존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수술은 수술 환자를 중심으로 외과계 의사와 마취과 의사, 소독 및 순회 간호사와 회복실 간호사, 의료 정책 변경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사 대체인력인 수술전담간호사(Yoon, 2010) 및 다양한 의료팀의 협조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과정(Park et al., 2015)임을 고려하여, 기존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독 및 순회 간호사만 대상으로 연구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회복실 간호사와 수술전담간호사도 수술실 간호사의 일원으로 같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 즉 소독 및 순회 간호사, 회복실 간호사, 수술전담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파악하고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업무 및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간호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로(Cho, 2003), 본 연구에서는 Ko 등 (2007)이 개발한 17개 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 2)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은 주어진 업무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Kwon, 2011)에서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마음가짐과 태도, 동기 또는 바람이다(Yoon, 2004). 본 연구에서는 Yoon (2004)이 개발한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된 값이다.

##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으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적용되는 행동, 감정 및 사고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전략이다. 효과적인 행동을 중점으로 한 행동전략으로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 설정, 자기 보상, 자기 비판이 있고, 효과적인 사고와 태도를 중심으로 한 인지전략으로 건설적 사고가 있다(Cho, 2003). 본 연구에서는 Manz (1983)가 개발한 도구를 Kim (2002)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이다.

## II. 문헌고찰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상관성을 고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간호업무성과 간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란 간호사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Yoon, 1995),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요구되는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집행이다(Cho, 2003). 간호업무성과의 효과적인 달성은 병원의 생산성과 양질의 간호서비스 보장으로 이어지기에 병원의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다루어져 왔다(Kim & Kim, 2012).

Ko 등 (2007)은 간호업무성과를 업무의 질과 양, 의사소통, 업무에 대한 지식 등과 같은 ‘간호업무 수행능력’, 업무 수행태도와 화합, 신뢰감의 속성을 가진 ‘간호업무 수행태도’, 물품 관리와 자기개발 및 문제해결능력 등의 ‘간호업무 수준향상’, 간호정보 조사도구의 활용, 간호사정, 간호기술 시범과 교육 등의 ‘간호과정 적용’, 총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Han & Kwon, 2016), 전문직 자아개념(Yang, 2018), 긍정심리자본(Yang, 2018; Lee & Kim, 2020)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사의 근무 경력과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m et al., 2012).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는 수술 환자의 생명과 수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Lee & Seomun, 2017),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목표관리특성, 직무몰입(Lee & Seomun, 2017), 팀워크 인식, 간호근무환경(Choi, 2021), 전문직 자아개념, 수술실 경력, 긍정심리자본(Moon & Shin, 2020)이 간호업무성과의 영향 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Moon 과 Shin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간호업무성과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주요 영향요인이라 하기

어렵다고 했고, 그 외 영향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여부, 학력, 근무 형태가 간호업무성과와 유의한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반면 Choi (2021)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 여부, 종교 여부, 학력은 간호업무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연령, 직위, 근무 형태, 경력, 급여, 병원의 병상 수가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중요시 여겨지는 것에 비해 수술실 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수는 일반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고 그 결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won 등 (2008)이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분석한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업무를 수술 환자관리, 수술 보조 업무(소독 간호사 역할), 수술 지원 업무, 수술실 감염 관리, 수술실 환경 관리, 수술실 물품 관리, 수술 장비 및 기구 관리, 수술실 안전 관리, 수술실 약품 및 제재 관리, 수술 관련 행정 업무, 수술실 교육 및 수술지침서 개발, 자기개발로 분류한 것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가 일반 병동 간호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Yoon (1987)의 연구 (Kwon et al., 2008에 인용됨)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사정 및 평가 업무(환자 관찰, 수술실 교육, 연락, 기록, 간호계획 수립 및 평가), 기능적 업무(소독 및 물품 준비, 수술 기구 및 장비 준비, 수술 중 환자 간호, 수술 보조, 조직 채취물 취급, 수술실 물품 관리 및 소독), 감독 및 지시 업무(세척 및 청소, 수술실 안전관리 업무, 타 직원 감독), 환자준비업무(수술 체위 유지, 수술 전 환자 준비 및 환자 간호, 환자 이송 보조) 및 기타 개인 업무 및 수술실 교육참석으로 분석한 것을 통해 일반 병동 간호사와는 다른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일반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결과를 수술실 간호사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다시 확인하고, 수술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이 간호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2.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

### 1)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일에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 또는 습관이다(Shin 등, 2005).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Rogal & Young, 2008),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하여 정보나 사정된 내용을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Simpson & Courtney, 2002). 간호 연구자들은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여 간호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Kwon 등(2006)은 비판적 사고 성향을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과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또는 바람’이라 정의하고 지적통합, 창의성, 도전성, 개방성, 신중성, 객관성, 진실추구, 탐구성 등의 8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Yoon (2004)은 비판적 사고 성향을 건전한 회의성, 지적 공정성, 객관성, 체계성, 신중성, 지적 열정 및 호기심, 자신감의 7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Brunt (2005)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18편의 비판적 사고 성향 및 비판적 사고 기술에 대한 연구를 메타 분석했는데, 비판적 사고는 스스로의 의식과 지식, 실무가 요구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비판적 정신의 발전을 통해 비판적 사고가 성장할 수 있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간호업무수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Brunt, 2005).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성공적인 간호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라는 연구가 있다(Zhang, Luk, Arthur, & Wong, 2001).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Hwang (1998), Park, J. A. (2008), Park, J. S. (2008)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Cho (2005)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간호업무수행에 관한 연구를 했고, 모두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간호업무수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Choi 와 Cho (2011)은 종합병원의 수술실을 제외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간호업무수행 간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업무수행 중 발생한 문제의 해결



과정이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Park 등 (2012)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 리더십, 자기 효능감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비판적 사고 성향, 리더십, 자기 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Park 과 Han (2015)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증가하여,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의 유의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 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건설적으로 사고하여 자기 규제(Self-regulation), 자기 조절(Self-control), 자기 관리(Self-management) 전략을 수립하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능력이다(Manz, 1983). 또한 지시, 명령, 통제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인 리더십과는 달리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적인 능력 발휘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며 개인의 발전을 가져온다 (Watson, 2004). 일반적 리더십이 한 사람의 리더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향을 미쳐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킨다(Manz & Sims, 2001). 또한 스스로 목표와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설정하며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자기비판을 하는 자율성을 강조한다(Moon & Shin, 2020).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자 전략으로,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목표의식을 증진시키므로 개인의 업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Dolbier, Soderstrom, & Steinhardt, 2001).

간호 분야에서도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Choi (2002)의 연구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간호 현장에서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판단하여 간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Moon & Shin, 2020에 인용됨).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다(Do & Seo, 2014). 또한,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무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간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셀프리더십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hin 등, 2005; Park & Kim, 2013). 임상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셀프리더십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연구(Cho & Choi, 2016)가 있는 반면, Moon 과 Shin (2020)의 연구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업무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주된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간호업무수행 및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가 있음에도 주로 간호대학생과 수술실을 제외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정도를 측정하고,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이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병원의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독 및 순회 간호사, 회복실 간호사, 수술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행정 및 관리직 간호사와 수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였고, 다중회귀분석 시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는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0개로 하여 173명이 산출되었다. 이에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종 2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도구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 상태, 학력, 소속 부서, 직위, 임상 및 수술실 근무 경력을 포함한 8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는 Yoon (200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27개 문항으로, 건전한 회의성 4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체계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지적 열정 및 호기심 5문항, 자신감 4문항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건전한 회의성’은 보편적,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며 자신과 타인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특성이고, ‘지적 공정성’은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을 추구하고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태도이다. ‘객관성’은

감정적, 주관적 요소가 아닌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고, ‘체계성’은 조직적, 순차적으로 탐구하고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특성이다. ‘신중성’은 타당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끈기 있게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성향이며, ‘지적 열정 및 호기심’은 배움을 열망하고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하고 열정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신감’은 자신의 사고 과정과 추론 능력에 자신이 있으며 비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특징이다(Yoon, 2008).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4, 14번 문항은 역문항에 해당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비관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 였으며, 본 연구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 이었다.

###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 (1983)가 개발하고 Kim (2002)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3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기대’는 도전을 극복하고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고, ‘리허설’은 주어진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연습하는 태도이다.

‘자기목표설정’은 목표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행동이며, ‘자기보상’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보상을 의미한다. ‘자기비판’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의식적인 행동이고, ‘건설적 사고’는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여기는 긍정적인 사고패턴이다(Cho, 2003). Manz (1983)의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 이었고 Kim (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7 였다. Kim (2002)이 중학교 교사의 셀프리더십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도구인 것을 고려하여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간호 분야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Seomun (2005)의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5$  이었고, Park 과 Park (200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 Moon 과 Shin (20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5$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다.

#### 4)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는 Ko 등 (2007)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Moon 과 Shin (2020)이 수술실 간호사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Moon 과 Shin (2020)이 도구를 수정할 당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소독 및 순회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해 수정된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소독 및 순회 간호사 외 회복실 간호사와 수술전담간호사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7, 10 번 문항의 '수술', '수술실' 단어를 생략하고, 간호학 교수 1 인과 소독 및 순회 간호사, 회복실 간호사, 수술전담간호사 10 인으로부터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수정된 도구의 CVI 는 0.8 이었다. 간호업무성과 측정 도구는 총 17 개 문항으로, 간호업무 수행능력 7 문항, 간호업무 수행태도 4 문항, 간호업무 수준향상 3 문항, 간호과정 적용 3 문항의 4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측정방식은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부터 4 점 '매우 그렇다' 까지 4 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Ko 등 (200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s  $\alpha=.92$  이었고, Moon 과 Shin (20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s  $\alpha=.94$  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 4. 자료수집

서울 소재 A 병원 간호부의 허가를 받은 뒤 2023년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부에 연구목적, 자료수집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여 협조 승인을 받았고, 간호부로부터 수술간호팀 내 총 13개

부서 중 8개 부서에서의 연구 진행을 허가 받았다. 연구가 허용된 부서 내에 근무 중인 간호사들 중 본 연구의 설명문과 동의서를 읽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호사에게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15~20 분이 소요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총 217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6 부의 설문지를 회수(회수율 95%)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과 자료가 불충분했던 6부를 제외한 200 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 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를 모두 취했으며 설문지를 배부하면서 대상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해 연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설문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서명 동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시 연락 가능한 연구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기재하였고, 작성한 설문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밀봉한 봉투에 넣어서 연구자가 각 부서의 수간호사를 통해 회수하였다. 대상자의 식별정보는 삭제한 후 임의의 대상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다. 연구 자료, 증례 기록서 등 모든 연구 관련 서류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연구자 개인사무실에 보관하며 연구실 내에서 연구자에 의해서만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 내용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연구실에 보관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문서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히 삭제할 예정이다.

## 6.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로 파악하고 Scheffé의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 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과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200명 중 174명이 여성(87%), 남성이 26명(13%)이었다. 이 중 소독 및 순회 간호사는 여성이 110명, 남성 3명, 회복실 간호사는 여성이 55명, 남성이 2명, 수술전담간호사는 남성이 21명, 여성이 9명이었다. 연령은 평균  $35.69 \pm 7.59$ 세로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83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30세 미만은 55명(27.5%), 40대 이상은 62명(31.0%)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이 각각 100명(50%)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대학교 학사를 소지(86.5%)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총 임상 근무 경력의 평균은  $11.98 \pm 8.12$ 년으로 15년 이상(32.5%)이 가장 많았고, 수술실 근무 경력도 15년 이상(29.5%)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11.45 \pm 8.13$ 년이었다. 총 임상 근무 경력에서 5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는 각 46명(23.0%)이었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는 43명(21.5%)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가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보다 더 많았다. 수술실 근무 경력에서는 5년 미만 근무한 경우가 50명(25.0%),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는 49명(24.5%),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는 42명(21.0%)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분포는 15년 이상 수술실에서 근무한 간호사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년 미만 근무,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 수 순서였다. 대상자인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는 소독 및 순회 간호사가 113명(56.5%)로 가장 많았고, 회복실 간호사가 57명(28.5%), 수술전담간호사가 30명(15.0%)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0)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pm$ SD
Gender	Male	26 (13.0)	
	Female	174 (87.0)	
Age (yr)	<30	55 (27.5)	35.69 $\pm$ 7.59
	30 $\leq$ ~ <40	83 (41.5)	
	$\geq$ 40	62 (31.0)	
Marital status	Single	100 (50.0)	
	Married	100 (50.0)	
Education level	College	8 (4.0)	
	University	173 (86.5)	
	$\geq$ Graduate school	19 (9.5)	
Total work career (yr)	<5	46 (23.0)	11.98 $\pm$ 8.12
	5 $\leq$ ~ <10	46 (23.0)	
	10 $\leq$ ~ <15	43 (21.5)	
	$\geq$ 15	65 (32.5)	
Operating room career (yr)	<5	50 (25.0)	11.45 $\pm$ 8.13
	5 $\leq$ ~ <10	49 (24.5)	
	10 $\leq$ ~ <15	42 (21.0)	
	$\geq$ 15	59 (29.5)	
Work role	Scrub, circulating nurse	113 (56.5)	
	Perianesthesia nurse	57 (28.5)	
	Surgical assistant nurse	30 (15.0)	

SD=Standard deviation.

##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및 간호업무성과 정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의 평균 점수는  $3.74(\pm 3.39)$ 점, 셀프리더십의 평균 점수는  $3.60(\pm 0.43)$ 점, 간호업무성과의 평균 점수는  $3.23(\pm 0.38)$ 점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영역은 객관성의 평균이  $4.16(\pm 0.50)$ 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 공정성( $4.15\pm 0.45$ ), 지적 열정 및 호기심( $3.81\pm 0.63$ ), 신중성( $3.65\pm 0.63$ ), 자신감( $3.61\pm 0.54$ ), 체계성( $3.46\pm 0.62$ ), 건전한 회의성( $3.34\pm 0.70$ ) 순서로 점수가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은 자기보상의 평균이  $4.07(\pm 0.66)$ 점으로 가장 높았고, 리허설( $4.00\pm 0.68$ ), 자기기대( $3.85\pm 0.62$ ), 건설적 사고( $3.58\pm 0.69$ ), 자기목표설정( $3.53\pm 0.76$ ), 자기비판( $2.59\pm 0.87$ ) 순서로 점수가 확인되었다. 간호업무성과의 하위영역은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평균이  $3.28(\pm 0.40)$ 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업무 수행태도( $3.23\pm 0.44$ ), 간호업무 수준향상( $3.21\pm 0.47$ ), 간호과정 적용( $3.20\pm 0.48$ ) 순서로 드러났다(Table 2).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of Participants (N=200)

Variables	Mean ± 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5)	3.74 ± 3.39
Healthy skepticism	3.34 ± 0.70
Intellectual honesty	4.15 ± 0.45
Objectivity	4.16 ± 0.50
Systematicity	3.46 ± 0.62
Prudence	3.65 ± 0.63
Intellectual eagerness, curiosity	3.81 ± 0.63
Confidence	3.61 ± 0.54
Self-leadership (1~5)	3.60 ± 0.43
Self-expectation	3.85 ± 0.62
Rehearsal	4.00 ± 0.68
Goal-setting	3.53 ± 0.76
Self-compensation	4.07 ± 0.66
Self-criticism	2.59 ± 0.87
Constructive thinking	3.58 ± 0.69
Nursing Performance (1~4)	3.23 ± 0.38
Competency	3.28 ± 0.40
Attitude	3.23 ± 0.44
Willingness to improve	3.21 ± 0.47
Nursing process application	3.20 ± 0.48

SD=Standard deviation.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과 간호업무성과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확인한 결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연령( $F=4.874, p=.009$ ), 교육 정도( $t=-2.227, p=.027$ ), 총 임상 근무 경력( $F=3.146, p=.026$ ), 수술실 근무 경력( $F=2.774, p=.043$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의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연령( $F=12.497, p<.001$ ), 결혼 여부( $t=3.083, p=.002$ ), 총 임상 근무 경력( $F=10.548, p<.001$ ), 수술실 근무 경력( $F=11.130,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연령이 40세 이상인 대상자의 평균이( $3.85\pm 0.38$ )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3.65\pm 0.40$ )보다 높았다. 교육 정도에 따라서 석사 이상 소지한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의 평균이( $3.90\pm 0.45$ ) 석사 미만인 경우( $3.72\pm 0.37$ )보다 높았다. 총 임상 근무 경력은 15년 이상인 경우( $3.84\pm 0.38$ )가 비판적 사고 성향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미만( $3.77\pm 0.33$ ), 5년 이상 10년 미만( $3.67\pm 0.35$ ), 10년 이상 15년 미만( $3.64\pm 0.45$ ) 순서로 평균이 낮아졌다. 수술실 근무 경력은 15년 이상인 경우( $3.85\pm 0.39$ ), 5년 미만( $3.75\pm 0.35$ ), 10년 이상 15년 미만( $3.69\pm 0.42$ ), 5년 이상 10년 미만( $3.65\pm 0.36$ ) 순서로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가 낮아졌다.

간호업무성과는 연령에 따라 40세 이상인 대상자( $3.41\pm 0.42$ )가 30세 미만( $3.11\pm 0.33$ ), 30세 이상 40세 미만( $3.17\pm 0.32$ )인 경우보다 높게 드러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 대상자( $3.31\pm 0.41$ )가 미혼 대상자( $3.15\pm 0.33$ )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총 임상 근무 경력에 따라서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3.43\pm 0.41$ )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간호업무성과가 높았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3.18\pm 0.35$ ), 5년 미만( $3.13\pm 0.35$ ), 5년 이상 10년 미만( $3.09\pm 0.25$ ) 순서로 간호업무성과가 낮아졌다. 수술실 근무 경력에 따라서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15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 $3.44\pm 0.42$ ), 10년 이상 15년 미만( $3.23\pm 0.36$ ), 5년 미만( $3.12\pm 0.34$ ), 5년 이상 10년 미만( $3.09\pm 0.25$ ) 순서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Variable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Nursing performanc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71±0.32	.329	3.66±0.35	-.759	3.09±0.31	1.966
	Female	3.74±0.40	(.742)	3.60±0.44	(.449)	3.25±0.38	(.051)
Age (yr)	<30 <sup>a</sup>	3.75±0.33	4.874	3.60±0.46	2.222	3.11±0.33	12.497
	30 ≤ ~ <40 <sup>b</sup>	3.65±0.40	(.009)	3.54±0.40	(.111)	3.17±0.32	(<.001)
	≥40 <sup>c</sup>	3.85±0.38	b<c	3.69±0.44		3.41±0.42	a,b<c
Marital status	Single	3.75±0.33	-.275	3.58±0.44	.671	3.15±0.33	3.083
	Married	3.73±0.43	(.784)	3.63±0.43	(.503)	3.31±0.41	(.002)
Education level	University	3.72±0.37	-2.227	3.59±0.42	-1.193	3.22±0.38	-1.093
	Master or higher	3.90±0.45	(.027)	3.70±0.49	(.234)	3.30±0.33	(.276)
Total work career (yr)	<5 <sup>a</sup>	3.77±0.33	3.146	3.58±0.46	1.208	3.13±0.35	10.548
	5 ≤ ~ <10 <sup>b</sup>	3.67±0.35	(.026)	3.53±0.40	(.308)	3.09±0.25	(<.001)
	10 ≤ ~ <15 <sup>c</sup>	3.64±0.45	c<b<a<d	3.59±0.42		3.18±0.35	a,b,c<d
	≥15 <sup>d</sup>	3.84±0.38		3.68±0.44		3.43±0.41	
Operating room career (yr)	<5 <sup>a</sup>	3.75±0.35	2.774	3.56±0.49	1.306	3.12±0.34	11.130
	5 ≤ ~ <10 <sup>b</sup>	3.65±0.36	(.043)	3.56±0.33	(.274)	3.09±0.25	(<.001)
	10 ≤ ~ <15 <sup>c</sup>	3.69±0.42	b<a<c<d	3.59±0.43		3.23±0.36	a,b,c<d
	≥15 <sup>d</sup>	3.85±0.39		3.70±0.45		3.44±0.42	
Department	Scrub, circulating nurse	3.78±0.41	1.391	3.63±0.47	.335	3.25±0.40	.843
	Perianesthesia nurse		(.251)		(.716)		(.432)
	Surgical assistant nurse	3.69±0.34		3.57±0.35		3.23±0.37	
		3.70±0.38		3.58±0.44		3.15±0.32	

SD=Standard deviation.

#### 4.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정도가 간호업무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간호업무성과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r=.558, p<.001$ )가 있었고, 셀프리더십과 간호업무성과 간에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 $r=.503, p<.001$ )가 있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과 간호업무성과 간 관계성을 확인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자기비판( $r=.068, p=.337$ )을 제외하고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업무성과와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영역 간에는 체계성( $r=.451, p<.001$ ), 지적 열정 및 호기심( $r=.413, p<.001$ ), 자신감( $r=.407, p<.001$ ), 객관성( $r=.398, p<.001$ ), 건전한 회의성( $r=.317, p<.001$ ), 지적 공정성( $r=.311, p<.001$ ) 순서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와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는 자기기대( $r=.471, p<.001$ ), 자기목표설정( $r=.361, p<.001$ ), 건설적 사고( $r=.354, p<.001$ ), 자기보상( $r=.342, p<.001$ ), 리허설( $r=.308, p<.001$ ) 순서로 낮아졌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N=200)

Variables	Nursing performance r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558 (<.001)
Healthy skepticism	.317 (<.001)
Intellectual honesty	.311 (<.001)
Objectivity	.398 (<.001)
Systematicity	.451 (<.001)
Prudence	.299 (<.001)
Intellectual passion, curiosity	.413 (<.001)
Confidence	.407 (<.001)
Self-leadership	.503 (<.001)
Self-expectation	.471 (<.001)
Rehearsal	.308 (<.001)
Goal-setting	.361 (<.001)
Self-compensation	.342 (<.001)
Self-criticism	.068 (.337)
Constructive thinking	.354 (<.001)

## 5.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결혼여부, 직무를 더미변수 처리 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나이는 총 임상 근무 경력( $r=.958, p<.001$ ), 수술실 근무 경력( $r=.935, p<.001$ )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다중 공선성을 고려하여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고, 총 임상 근무 경력과 수술실 근무 경력 간에도 다중 공선성을 고려하여 수술실 근무 경력만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이 외에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분산팽창 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25~1.407으로 10 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711~.889으로 0.1 이상이므로 변수 간 다중 공선성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709로 자기상관성이 없어 회귀분석 결과는 타당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26.593, p<.001$ ), 43.6%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술실 근무 경력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인 자기기대와 자기보상,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영역인 지적 공정성과 체계성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근무 경력에 따라 5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beta$ 는 .189,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의  $\beta$ 는 .360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군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영역 중 지적 공정성의  $\beta$ 는 .172, 체계성의  $\beta$ 는 .216 이었고,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자기기대의  $\beta$ 는 .230, 자기보상의  $\beta$ 는 .169 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자기보상, 지적 공정성, 체계성, 자기기대 순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Nursing Performance

(N=200)

Variables	B	SE	$\beta$	t (p)
Operating room career (Ref.: 5> yrs)				
10 ≤ ~ <15 yrs	2.925	.879	.189	3.327 (.001)
15 ≤ yrs	4.968	.800	.360	6.212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honesty	.606	.199	.172	3.047 (.003)
Systematicity	.730	.209	.216	3.489 (.001)
Self-leadership				
Self-expectation	.785	.216	.230	3.640 (<.001)
Self-compensation	.535	.188	.169	2.853 (.005)
F = 26.593, $p < .001$				
$R^2 = .453$				
Adjusted $R^2 = .436$				

SE=Standard error.

## V. 논의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확인했을 때, 결혼여부에 따라서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 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30 세 미만인 대상자들과 30 대의 대상자들에 비해 간호업무성과가 유의하게 높았고, 총 임상 근무 경력과 수술실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 임상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직책이 높을수록, 결혼을 한 기혼자일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 Park 과 Park (2008), Han 과 Kwon (2016), Mun 과 Kim (2016), Moon 과 Shin (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Mun 과 Kim (2016)은 연령과 직책,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총 임상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간호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어 간호역량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간호업무성과도 향상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업무의 수준을 향상시켜 환자들에게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하고 병원 전체의 간호업무성과 정도 증진을 위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후배 간호사들에게 임상 실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함께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후배 간호사에게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 선배 간호사에게는 교육제공을 통한 심리적 보상 등 병원 내에서 전문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는 5점 만점에 3.74 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은 나이에 따라서 40 세 이상인 대상자들이 30 대 대상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정도는 대학원 수료 이상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다른 대상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총 임상 근무 경력에 따라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가장 높았고,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대상자 순서로 비판적 사고 성향이 낮아졌다. 수술실 근무 경력에서도 15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가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순서로 비판적 사고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임상 근무 경력도 많아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성향, 개방적인 태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탐구하는 것 등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정도가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것을 보아 간호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되었던 비판적 사고 성향의 중요성이 학부 이상의 교과과정에서 재환기됨으로써 임상 실무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적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지방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Lee 와 Pak (2014)의 연구결과가 5점 만점에 평균이 3.30 점이었고,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Park 과 Kwon (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81 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을 확인한 기존 연구들을 보았을 때,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총 임상 근무 경력과 수술실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많아진 것(Park & Kwon, 2007)과 종합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 연구한 Park 과 Kim (2009)의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게 나온 Park 과 Kim (2009)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판적 사고 성향이 후천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에, 비판적 사고 성향 증진을 통한 간호업무성과 발전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수술실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연구 결과를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n 과 Kwon (2016)의 연구결과가 3.80 점이었던 것과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Moon 과 Shin (2020)의 결과가 3.62 점, 중소 의료기관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Park 과 Park (2008)의 결과가 3.58 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크기 및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지만, Park 과 Park(2008)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육정도가 많아질수록, 임상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병원에서의 직책이 높아질수록,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을 많이 할수록 셀프리더십의 평균이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eomun (2005)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자율성을 통해 전문직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게 하며 임상 간호 현장에서 창의력을 개발하게 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변수라고 한 것을 토대로, 수술실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하위영역 중 평균점수가 비교적 낮았던 자기비판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실무에서 Clinical Ladder System(CLS)과 비판적 성찰(CR: Critical Reflection)을 통해 자기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일회적이라는 점과 비판적 성찰 등의 지난 업무처리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처벌하는 것처럼 느끼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자기비판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임상 간호사들이 부담감이나 거리낌 없이 자기비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자기비판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실무 중 자기비판을 통한 셀프리더십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는 하위영역 별로 간호업무 수행능력, 간호업무 수행태도, 간호업무 수준향상, 간호과정 적용 순서로 낮아졌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총 임상 근무 경력과 수술실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병동 및 외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직책이 높을수록, 임상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2). Son 등 (2013)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책이 높을수록, 총 임상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해당 병동에서의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업무성과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책이 높을수록, 총 임상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일 경우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Mun &

Kim, 2016).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요인은 부서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연령이 높아지면서 경력을 쌓고 임상에서 간호 실무 경험을 많이 할수록, 교육정도가 많을수록 간호분야의 지식수준이 많아져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성과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경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력을 이용한 간호 분야에서의 자기계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간호 실무 교육 외에도 간호업무성과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등과 관련된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간호업무와 자기계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으로 확인했을 때, 수술실 근무 경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영역인 체계성, 지적 공정성,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인 자기기대와 자기보상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간호사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탐구하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체계성과 진실을 추구하고 개방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지적 공정성을 갖추게 해야 한다. 또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자기기대를 갖도록 해야 하고, 또한 업무를 잘 수행한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자기보상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소독 및 순회 간호사를 수술실 간호사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수술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회복실 간호사와 수술전담간호사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직무에 따라 분류했을 때,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는 각 직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진행한 서울 소재 A 병원의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행정 및 관리직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사의 수가 566 명 중 소독 및 순회 간호사 335 명(59.1%), 회복실 간호사 166 명(29.3%), 수술전담간호사 65 명(11.4%)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가 소독 및 순회 간호사 113 명(56.5%), 회복실 간호사 57 명(28.5%), 수술전담간호사(15.0%)인 것을 보아 대상자 직무 별 비율이 전체 비율과

비슷하게 추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소독 및 순회 간호사의 비율이 약 60%인 것과, 의료정책의 영향으로 수술전담간호사의 수가 증가 추세인 것(Yoon, 2010)을 반영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직무 별 대상자 수를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투약 간호, 업무 교대 시 인수인계, 간호업무 기록, 간호 업무 수행,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태도, 타 부서와의 신뢰도 조성, 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 수행, 물품 파손 점검 및 보고, 보수교육 참여 및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 개발, 환자 사정 후 수술 간호 제공,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 관련 정보 제공’ 등 간호사의 일반적인 업무라 여겨지는 내용으로 간호업무 기준을 세우고 도구를 개발한 결과로 여겨지며, 이는 수술전담간호사의 간호 업무 특성을 담아내지 못함과 수술전담간호사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의 제한으로 인한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수술전담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하여 수술 과정에서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라는 인식(Im et al., 2023)이 다수이지만, 간호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술 전 수술 준비 간호, 수술 중 수술 보조, 수술 후 환자 이송 과정 중 환자 안전 관리 등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환자 간호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무의 간호사의 간호업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수술실 간호업무성과 측정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의료 정책은 현 의료실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하고 있고, 의료장비 및 도구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에게 최고의 수술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수술실이라는 특수 분야의 간호 전문성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추후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연구하는 활동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소독 및 순회 간호사, 회복실 간호사, 수술전담간호사를 217 명을 대상으로 2023 년 2 월 13 일부터 28 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영역인 체계성과 지적 공정성,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인 자기기대와 자기보상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술실 근무 경력이 15 년 이상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 간호업무성과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의 각 하위영역은 셀프리더십의 자기비판을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간호업무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의 증진이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셀프리더십에서 평균이 가장 낮았던 자기비판 영역이 간호업무성과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비판과정을 스스로 처벌하는 것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기비판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셀프리더십을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간호인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수술실 간호사를 비롯한 임상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여 간호업무성과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수술실 간호사들이 자기비판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자기비판을 실행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병원 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간호업무 발전을 위해 장기 근속한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간호 경험을 후배 간호사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 및 교육의 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넷째. 비판적 사고를 간호 과정에 적용하고 있는 수술실을 포함한 임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추후 계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술실 간호사들의 직무 별 특성을 반영한 수술간호업무성과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Brunt, B. A. (2005).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An integrated review.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36*(2), 60-67.
- Caldeira, S. M., de Avila, M. A. G., & Braga, E. M. (2013). Educ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in surgical and anesthetic recovery center: Perception of the nursing team. *Journal of Nursing Universidade Federal de Pernambuco, 7*(8), 5232-5238.
- Chang, S. O., Shin, N. M., & Khim, S. Y. (2009). Critical thinking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4), 459-471.
- Cho, H. S. (2005).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222-231.
- Cho, K. H. (2003).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bout job-satisfaction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Cho, Y. M., & Choi, M. S. (2016). Effect of clinical nurses' basic psychological need, self-leadership and job stress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343-353.  
<https://doi.org/10.14400/JDC.2016.14.8.343>
- Choi, H. R., & Cho, D. S. (2011). Influence of nurses' performance with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3), 265-274.
- Choi Y. (2002). *Self-leadership*. Hongik University Research Journal.
- Choi, Y. H. (2021). *The Influence of Teamwork Recognition and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of Operating Room Nurses on Their Nursing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 A University, Busan.
- Do, E. S., & Seo, Y. S. (201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 283-291.*

- Dolbier, C. I., Soderstrom, M., & Steinhardt, M. A. (2001).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enhanced psychological, health and work outcomes. *Journal of Psychology, 125, 469-486.*
- Han, A. L., & Kwon, S. H. (2016).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8(1), 12-21.*  
<https://doi.org/10.17079/jkgn.2016.18.1.12>
- Hwang, J. W. (199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Im, H. S., Chung, H. I., & Choi, K. J. (2023). Job Roles of the Physician Assistants Working in the Surgical Departments of Tertiary Hospitals in Kore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9(2), 155-168.*  
<https://doi.org/10.1111/jkana.2023.29.2.155>
- Im, M. K., Sung, Y. H., & Jung, J. H. (2017). Relationship among types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self-leadership and burnout as perceived by perioperativ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2), 170-180.*  
<http://dx.doi.org/10.1111/jkana.2017.23.2.170>
- Im, S. I., Park, J., & Kim, H. S. (2012). The effects of nurse's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274-282.*  
<http://dx.doi.org/10.5807/kjohn.2012.21.3.274>
- Jung, S. Y. (2022).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Nursing Performance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D. C., & Kim, D. G. (2012). The relationship among main factors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focusing on authentic leadership,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ownership.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4), 27-51.
- Kim, H.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H. S., & Han, S. J. (2016). The survey on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skill and self-efficacy on patients safety competenc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598-608.  
<http://dx.doi.org/10.5762/KAIS.2016.17.6.598>
- Kim, J. R., Ko, Y., Lee, Y., & Kim, C. J. (2022).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5), 511-521. <https://doi.org/10.4040/jkan.22076>
- Kim, K. O., Kim, B. H., Kim, Y. S., & Jeon, H. W.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nursi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ypes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team effectiveness at operating roo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3), 385-396.
- Kim, Y. M., & Yi, Y. J. (2012). Influence of job stress and empowerment on clinical nurses'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258-265.
- Kim, Y. S., & Kim, M. (2021). Factors influencing nurses' performance of care in COVID-19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1(6), 678-688. <https://doi.org/10.4040/jkan.21131>
- Ko, M. S., Lee, H. Z., & Koh, M. S. (2017). Effects of nurses' social capital and job engagement on nursing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1), 42-51.

<http://dx.doi.org/10.11111/jkana.2017.23.1.42>

- Ko, Y. K., Lee, T. H., & Lim, J. Y. (2007).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Measurement Scale for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3), 286-294.
- Kwon, I. S., Lee, G. E., Kim, G. D., Kim, Y. H., Park, K. M., Park, H. S., et al. (2006).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950-958.
- Kwon, M. S. (2011).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87-394.
- Kwon, S. B., Park, Y. S., Kim, D. O., Yi, Y. J., Lee, E. H., & Cho, K. S. (2008). An analysis of nursing work of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1), 72-84.
- Lee, A. S., Yoon, C. K., & Park, J. K. (2012).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of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283-289.
- Lee, H. S., & Yom, Y. H. (2015). Role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mbeddedness and job performance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4), 375-385.
-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4.375>
- Lee, J. Y., & Pak, S. Y. (2014).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e environment of nurs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es in local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 145-153.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2.145>

Lee, S. N., & Kim, J. A. (2020). Prediction model for nursing work outcome of nurses: focused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1), 1-13.

<https://doi.org/10.4040/jkan.2020.50.1.1>

Lee, Y. H., & Seomun, G. A. (2017). Effects of MBO and job commitment on nursing performance in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309-316.

<https://doi.org/10.14400/jdc.2017.15.4.309>

Manz, C. C.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Manz, C. C., & Sims, H. P. (2001). *The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California: Berrett-Koehler Publishing Co.

Memarian, R., Salsali, M., Vanaki, Z., Ahmadi, F., & Hajizadeh, E. (2007). Professional ethics as an important factor i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Nursing Ethics*, 14, 203-214.

Moon, H. S., & Shin, S. H. (2020).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Operating Room Nurses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6(2), 139-148.

Mun, M. Y., & Kim, M. Y. (2016). Influence of teamwork skill and decision making competency on nursing work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5), 1361-1373.

<http://dx.doi.org/10.7465/jkdi.2016.27.5.1361>

Murphy, E. K. (2004). Protecting patients from potential injuries.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 Journal*, 79(5), 1013-1016.

Neck, C. P., & Manz, C. C. (1996). Thought self-leadership: The impact of

mental strategies training on employee cognition, behavior, and affec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5), 445-467.

[https://doi.org/10.1002/\(sici\)1099-1379\(199609\)17:5%3C445::aid-job770%3E3.0.co;2-n](https://doi.org/10.1002/(sici)1099-1379(199609)17:5%3C445::aid-job770%3E3.0.co;2-n)

Park, A. N., Chung, K. H., & Kim, W. G. (2016).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1),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1.1>

Park, H. S., & Han, J. Y. (2015).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3), 695-706.  
<http://dx.doi.org/10.7465/jkdi.2015.26.3.695>

Park, I. S., & Kim, R. (201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 105-117.

Park, J. A. (2008).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Park, J. A., & Kim, B. J. (200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6), 840-850.

Park, J. H., & Chung, S. K. (2016).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36-244.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236>

Park, J. S. (2008).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preceptor nurse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of new graduate nurse* [Unpublished

-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Park, J. W., Kim, C. J., Kim, Y. S., Yoo, M. S., Yoo, H. R., Chae, S. M., et al., (2012).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4(3), 223-231.
- Park, J. Y., & Hwang, J. I. (2021). Relationships among non-nursing tasks, nursing care left undone, nurse outcomes and medical errors in integrated nursing care wards in small and medium-sized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1(1), 27-39. <https://doi.org/10.4040/jkan.20201>
- Park, K. N., & Park, M. K. (2008).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1), 63-71.
- Park, K. O., Kim, J. K., & Kim, M. S. (2015). Operating room nurses' experiences of securing for patient saf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761-772. <http://dx.doi.org/10.4040/jkan.2015.45.5.761>
- Park, S., Park, K. O., Kim, M. S., Yoon, G. S., & Lee, Y. Y. (2008).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tool for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4(1), 71-84.
- Park, S. M., & Kwon, I. G. (2007).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 - 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863-871.
- Rogal, S. M., & Young, J. (2008). Exploring critical thinking in critical care nursing education: A pilot study.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39(1), 28-33.
- Seomun, G. A. (2005).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outcome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1(1), 45-58.

- Seomun, G. A., Chang, S. O., Cho, K. H., Kim, I. A., & Lee, S. J. (2006).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 151-158.
- Seong, J. S., & Song, R. (2016). Work performance of critical care nurses based on the job characteristics model.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9*(2), 36-47.
- Shin, K. A., & Cho, B. H.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 46-56.
- Shin, K. R., Ha, J. Y., & Kim, K. H.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2), 382-389.
- Simpson, E., & Courtney, M. (2002). Critical thinking skill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 at program entry and exit. *Nursing Health Care Perspect*, *20*(5), 248-252.
- Son, Y. J., Lee, Y. A., Sim, K. N., Kong, S. S., & Park, Y. S. (2013).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burnout on nursing performance of intensive care units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3), 278-288.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3.278>
- Watson, L. (2004). Self-leadership: Becoming an exceptional leader. *Radiologic Technology*, *75*(6), 457-467.
- Yang, H. M. (2018). Effects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work outcome: focused on the nurses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1), 87-97.  
<https://doi.org/10.5392/JKCA.2018.18.11.087>
- Yoon, A. J. (1995). *Study 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efficiency*



- on work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Yoon, J.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Yoon, J. (2008).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2), 159-166.
- Yoon, K. S. (1987). A Study of Nursing Manpower Requirements based on the Nursing Times spent in Operating Room of an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1), 45-61.
- Yoon, K. S. (2010).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perioperativ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1), 86-100.
- Zhang, Z. X., Luk, W., Arthur, D., & Wong, T. (2001). Nursing competencies: Personal characteristics contributing to effective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3(4), 467-474.

## 부록

### 부록 1.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제목 :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Version 1.0)

### 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제목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책임자	성명	유은미	소속	서울아산병원 수술간호팀	연락처	

본 설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첨부된 설문지는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이며,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 리더십,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결혼여부, 학력 및 경력 등)의 개인 정보와 설문지에 따른 개인 생각 등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암호화하여 접근 제한 등으로 개인 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논문 게재 후 연구 종료된 시점부터 연구 점검을 위해 최소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서면 동의 후 응답해주시신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답변해주시신 자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오니 정성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이며, 연구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비용이나 해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으면 설문지 작성하시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약 5,000원 정도의 불펜)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설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유은미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임상간호리더 전공 재학 중)

연락처 :

지도교수 :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박정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참여자로서의 복지 및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누군가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보호센터 ☎ 02-3010-7285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 02-3010-7166

연구제목 :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Version 1.0)

##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 제목 :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인은 이 연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를 현행 법률과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본 연구의 점검을 실시하는 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및 규제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 절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에 관한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을 본 동의서 서명을 통해 허용합니다.

본인은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본인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 동의서를 작성하며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을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동의를 서명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연구책임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동의를 서명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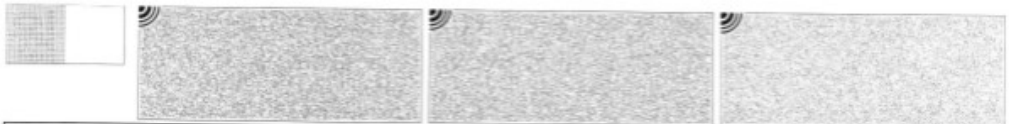
부록 2. IRB 심의승인 통지서

주소 :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TEL : 02-3010-7166


**심의결과 통지서**

심의결과 통지일	2023년 01월 13일	심의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정규 <input type="radio"/> 신속
----------	---------------	------	--

접수번호	S2022-2762-0001					
과제번호	2023-0057					
과제명	수술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책임자	소속	수술간호팀	직위	대리	성명	유은미
의뢰자	소속	IT				
연구상세분류	생명윤리법	인간대상연구				
	연구대상	기타(간호사 대상 연구)				
	연구구분	설문조사연구				
	연구단계					
심의종류	신규과제					
심의결과	연구개시 및 지속, 변경사항 적용이 가능한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기존대로 연구지속		
	보완심의 또는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결과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시정승인</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보완(조건부)</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보완(재심의)</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연구는 지속하나 보완 필요</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연구는 지속하나 이후 연구대상자에게 이루어지는 연구결과 중지</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연구는 지속하나 새로운 연구대상자 모집 중지</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연구자에 대한 조치</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승인된 연구의 일시중지</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승인된 연구의 조기종료</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반려</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기각</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보완</div> <div style="width: 50%;"><input type="checkbox"/> 기타</div> </div>				
서류접수일	2022년 12월 22일		심의일	2023년 01월 05일		
지속심의주기	<input type="checkbox"/> 3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년		승인유효기간	2024년 01월 04일		
	<input type="checkbox"/>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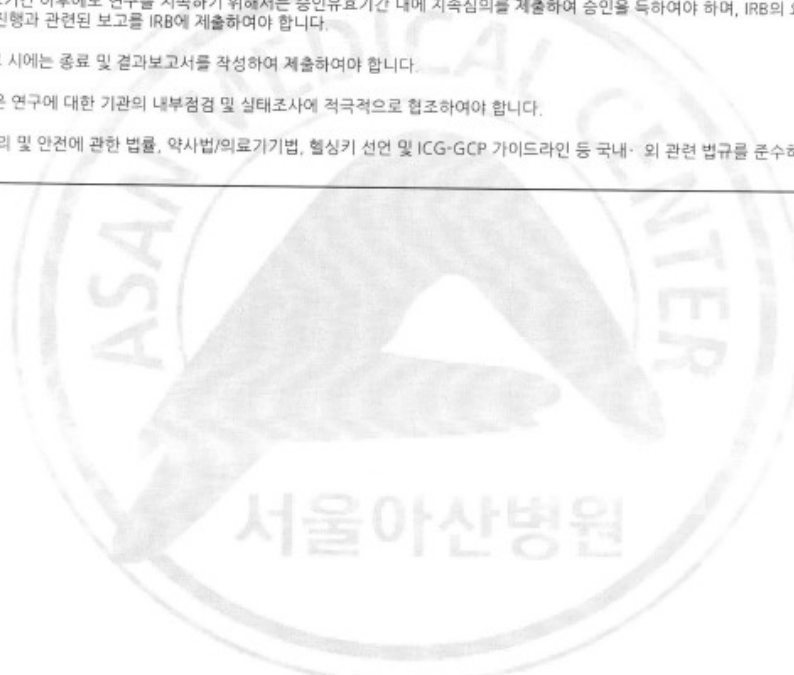
기타 심의 의견
<p>본 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제출하신 신규과제를 심의한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충실히 답변을 하시고 의견을 제시함에 감사 드립니다. 제시하신 답변은 본 회의에서 모두 수용되었습니다.</p> <p>Comment :</p> <p>1. 인간대상연구를 처음 시행하시는 연구진의 경우, 동의서교육을 받고 해당 이수증을 연구계획변경을 통해 연구 시작 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교육방법]</p> <p>1) ARIS 접속: aris.amc.kr                      2) 교육신청 경로: ARIS Home &gt; 교육 &gt; 학습자 &gt; 임상시험종사교육신청 &gt; 동의서 교육 &gt; "동의서교육_ 임상 시험외"                      3) 수료증 출력: ARIS Home &gt; 교육 &gt; 학습자 &gt; 나의교육현황 &gt; 종사자 교육 이수 현황 (교육 완료 후 2시간 이후 ARIS에서 확인 가능)</p> <p>※ 위험수준평가: Level I 위험(최소 위험 이내)</p> <p>※ 본 임상연구심의위원회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해당 연구의 지속심의 주기에 맞춰 지속심의를 제출 및 승인 받아야 하며, 연구가 종료된 경우 보고기한을 준수하여 종료보고를 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제출자료 목록 및 버전번호
<p>연구계획서(국문)(1.1)                      증례기록서(1.1)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1.0)</p>

임상연구심의위원회/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류민희 
<p>본 임상연구심의위원회는 국제표준화추진회의(ICH),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준(KGCP)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p>	



[연구자 준수사항]

1. 승인된 임상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임상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에 대해 IRB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승인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는 IRB통지일이 명시된 동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연구대상자에게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연구수행 중 대상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IRB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승인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승인유효기간 내에 지속심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IRB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연구종료 시에는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승인 받은 연구에 대한 기관의 내부점검 및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의료기기법, 헬싱키 선언 및 ICG-GCP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록 3. 자료수집 설문지

I.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                    )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문대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 ③ 대학원 재학 중    ④ 대학원 졸업 이상
5. 귀하의 임상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개월
6. 귀하의 수술실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개월
7. 현재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 및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수술실 간호사    ② 회복실 간호사    ③ 수술전담 간호사
8. 귀하의 현재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일반 간호사    ② 책임(방장) 간호사



## II. 비판적 사고 성향

다음은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만약 내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심사숙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신념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떤 주장이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새로운 것처럼 다시 생각해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시작부터 끝까지 대체로 논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의문이 생	①	②	③	④	⑤

	길 때가 있다.					
11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할 때 논리적이 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열성적으 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서둘러 결론짓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복잡한 문제라도 기꺼이 풀어나 가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에도 종종 의문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어려운 일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빨리 판단하지 않고 거듭 생각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문제를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알 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내가 잘 모르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모르는 문제가 발견되면 알 때가 지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 있 으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한	①	②	③	④	⑤

	다.					
24	나는 내 의견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과정을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평하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나 자신의 추론 능력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 역문항

### Ⅲ. 셀프리더십

다음은 셀프리더십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연습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중요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상상해보며 마음 속으로 연습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그것에 대처하는 것을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기를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과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길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을 잘 수행했을 때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에게 할당된 일을 잘 수행했을 때 평소 즐기는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 보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실패와 관련해서 종종 스스로에게 비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나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과업수행을 서투르게 했을 때 자신을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방해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실패를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배움의 기회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어려운 과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역문항

#### IV. 간호업무성과

다음은 간호업무성과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처방 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계획하여 오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이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투약 관리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업무 교대 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수술간호지침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간호업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수술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심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부서 내 직원과 화합하여 타 부서 직원들과 상호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부가적인 부서 업무에 솔선수범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기구, 시설 수리, 파손, 분실을 점검하고 보고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의무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수술스케줄을 확인하여 간호사정을 정확히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여 수술 전, 중, 후 간호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수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부록 4.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성과 설문조사 항목별 결과값

I. 비판적 사고 성향

(N=200)

	항목	Mean ± SD
1	나는 만약 내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인정한다.	4.69 ± 0.53
2	나는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심사숙고 한다.	3.95 ± 0.73
3	나는 내 신념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4.14 ± 0.59
4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3.62 ± 0.98
5	나는 어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4.29 ± 0.66
6	나는 어떤 주장이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34 ± 0.73
7	나는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새로운 것처럼 다시 생각해볼 때가 있다.	3.18 ± 0.94
8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한다.	4.00 ± 0.73
9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시작부터 끝까지 대체로 논리적이다.	3.50 ± 0.76
10	나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3.39 ± 0.98
11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할 때 논리적이라고 한다.	3.22 ± 0.82
12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3.58 ± 0.85
13	나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한다.	3.65 ± 0.85
14	나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서둘러 결론짓는 편이다.*	3.45 ± 0.92
15	나는 복잡한 문제라도 기꺼이 풀어나가려고 애쓴다.	3.56 ± 0.78
16	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에도 종종 의문이 생긴다.	3.23 ± 0.90
17	나는 어려운 일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6 ± 0.75
18	나는 빨리 판단하지 않고 거듭 생각하는 편이다.	3.55 ± 0.91



19	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문제를 처리한다.	3.76±0.66
20	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알려고 노력한다.	4.09±0.74
21	나는 내가 잘 모르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려고 애쓴다.	3.90±0.82
22	나는 모르는 문제가 발견되면 알 때까지 노력한다.	3.83±0.74
23	나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	3.35±0.86
24	나는 내 의견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3.84±0.75
25	나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과정을 적용한다.	3.67±0.69
26	나는 내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평하게 평가한다.	3.78±0.71
27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나 자신의 추론 능력을 믿는다.	3.58±0.69

SD=Standard deviation.

II. 셀프리더십

(N=200)

	항목	Mean ± SD
1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7 ± 0.62
2	나는 내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3.75 ± 0.76
3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3.73 ± 0.71
4	나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연습해본다.	4.02 ± 0.80
5	나는 중요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상상해보며 마음 속으로 연습해본다.	4.20 ± 0.74
6	나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그것에 대처하는 것을 연습한다.	3.78 ± 0.78
7	나는 내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기를 즐긴다.	3.49 ± 0.88
8	나는 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	3.78 ± 0.87
9	나는 나의 과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길 즐긴다.	3.35 ± 0.96
10	나는 일을 잘 수행했을 때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낀다.	4.45 ± 0.59
11	나는 나에게 할당된 일을 잘 수행했을 때 평소 즐기는 활동을 한다.	3.94 ± 0.90
12	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 보상한다.	3.82 ± 0.96
13	나는 나의 실패와 관련해서 종종 스스로에게 비판적이다.*	2.71 ± 1.04
14	나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나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2.52 ± 0.93
15	나는 과업수행을 서투르게 했을 때 자신을 꾸짖는다.*	2.54 ± 1.07
16	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방해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한다.	3.18 ± 0.89
17	나는 실패를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배움의 기회로 생각한다.	3.60 ± 0.87
18	나는 어려운 과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까를 먼저 생각한다.	3.95 ± 0.74

SD=Standard deviation.

Ⅲ. 간호업무성과

(N=200)

	항목	Mean±SD
1	나는 처방 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계획하여 오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20±0.44
2	내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이 처리한다.	3.24±0.59
3	나는 투약 관리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3.33±0.52
4	나는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3.30±0.49
5	나는 업무 교대 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 한다.	3.34±0.52
6	나는 수술간호지침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한다.	3.40±0.55
7	나는 간호업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행한다.	3.18±0.55
8	나는 수술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심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3.26±0.57
9	나는 부서 내 직원과 화합하여 타 부서 직원들과 상호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3.40±0.53
10	나는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3.21±0.52
11	나는 부가적인 부서 업무에 솔선수범한다.	3.04±0.65
12	나는 기구, 시설 수리, 파손, 분실을 점검하고 보고한다.	3.27±0.57
13	나는 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3.20±0.66
14	나는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3.15±0.54
15	나는 의무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수술스케줄을 확인하여 간호사정을 정확히 수행한다.	3.26±0.52
16	나는 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여 수술 전, 중, 후 간호를 수행한다.	3.25±0.58
17	나는 수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08±0.64

SD=Standard deviation.

## ABSTRACT

# Influenc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among Operating Room Nurses

Ryu, Eunmi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Park, Jeong Yun, RN, Ph.D.

###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aimed at examining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operating room nurses, as well as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erformance.

###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3th to 28th, 2023, targeting nurses working in the operating room, scrub and circulating nurses, perianesthesia nurses, and surgical assistant nurses at A hospital in Seoul.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00 nurs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 Results

Nursing performance varied based on certain factors. Nursing performance levels were higher among participants aged 40 or above ( $F=12.497$ ,  $p<.001$ ). In addition, marital status was associated with nursing performance, with married individuals demonstrating higher performance levels ( $t=3.083$ ,  $p=.002$ ). Furthermore, nursing performance was influenced by work experience: participants with a total work career of 15 years or more ( $F=10.548$ ,  $p<.001$ ) and operating room career of 15 years or more ( $F=11.130$ ,  $p<.001$ ) showed higher levels of nursing performance.

There wa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r=.558$ ,  $p<.001$ ) and self-leadership ( $r=.503$ ,  $p<.001$ ) with nursing performance. When examined in each subdomain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erformance was correlated with systematicity, intellectual passion and curiosity, confidence, objectivity, healthy skepticism, and intellectual honesty. Self-leadership, excluding self-criticism, showed a correlation with nursing performance in the following order: self-expectation, goal-setting, constructive thinking, self-compensation, and rehearsal.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erformance among the participants were identified. The regression model had an explanatory power of 43.6%. The subdomain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ystematicity and intellectual honesty, and the subdomains of self-leadership, self-expectation and self-compensation, along with

operating room career of 15 years or more and 10 to less than 15 years, had a positive impact on nursing performance.

## Conclusion

In summary, operating room career and specific asp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amely, systematicity and intellectual honesty, as well as certain aspects of self-leadership, namely, self-expectation and self-compens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nursing performanc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work experience for enhancing nursing performance and to continuously engage in self-development within the nursing field utilizing that experience. Additionally, specific educational approaches should be established to fos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factors that enhance nursing performance. Furthermore, to advance the nursing expertise in the surgical department, tools and resources that reflect the surgical setting need to be developed. It is also crucial to further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nursing performance among operating room nurses.

Key Words: Nursing Performa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Operating Room Nurses